



[경제종합]
블프 특수는 옛말?
유통업계
물류·광고 부담 속얌이
04



Life

[라이프]
갤러리아백
유기견 보호 테마
쇼핑백 선배
니



앱으로 관리하고 야외공원 조성... 위드코로나 발맞춘 도시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델리 앱 만들어 코로나 정보 알려
밴쿠버 느린거리·팝업광장 조성
칭다오 개방형 소규모 공원 설치

세계도시들이 공공앱을 개발해 비대면 행정 서비스를 선보이거나 거리두기가 가능한 공공장소 확충, 녹지 확대 등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정책을 펼치고 있다.

28일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인도 델리 NCT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봉쇄령이 지속되면서 지역 내 행정업무 공백이 확대되자 이를 메우기 위해 공공 애플리케이션을 개발·보급 중이다.

먼저 보건 분야에서는 '델리 코로나' 앱을 만들어 코로나 감염자수, 사용 가능 병상수 현황 같은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는 '그린 앱'을 보급해 지역 내 오염 정보를 제공하고, 오염물질 신고



26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에서 시민들이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을 하기 위해 가게 앞에 줄을 서 있다. /뉴시스·신화 통신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 기존에 산재한 앱을 통합한 대중교통 종합 애플리케이션인 '원 델리'를 개발해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였다. 델리 NCT 정부는 QR 카드 결제를 통해 지역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1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대중교통 월·연간 이용권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박원빈 통신원은 "대면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디지털화해 지역 주민들이 앱을 통해 손쉽게 정보를 이용하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했다"고 평가했다.

캐나다 밴쿠버시는 거리두기를 지키며 활동할 수 있는 야외 공간 확보와 코로나로 어려운 지역 상권 살리기를 동시에 추진하고자 '지역 공동체를 위한 거리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밴쿠버시는 코로나로 대면 접촉과 실내 모임 금지가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느린 거리 만들기'와 '팝업 광장 조성'이라는 묘안을 짜냈다.

느린 거리는 제한속도를 시속 40km로 낮춰 놓은 공간이다. 주민들은 느린 거리에서 걷기 운동을 하거나 자전거, 스쿠터를 탈 수 있다. 시내 곳곳에 설치된 느린 거리는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야외 활동을 하고 지역 상점에 갈 수 있는 편의를 제공했다. 시는 느린 거리를 통해 시민들은 코로나 블루(우울감)에서 벗어나고 자영업자들은 영업난을 덜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시는 감염병 사태로 실내 모임과 소통이 제한된 상황을 극복하고자 '팝업 광장'을 운영 중이다. 팝업 광장은 주민들이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소규모 모임을 개최하거나 지역 상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임시 마을 공공공간이다.

장지훈 통신원은 "시민들을 대상으

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90%가 팝업 광장 등을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중국 칭다오시는 코로나로 그린 인프라에 대한 시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 녹화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도심부 곳곳에 개방형 소규모 공원을 설치 중이다. 시는 '칭다오시 제13차 5개년 입법발전 계획'을 통해 지난 2016~2020년 관내 312개 썬지공원을 만든 데 이어 올해에는 소규모 공원 31개소를 추가로 조성키로 했다. 사업 초반에는 녹지 확보가 가능한 지역 위주로 공원 입지를 선정했으나 최근에는 시장 핫라인, 시민 소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 수요가 높은 지역에 공원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강경이 통신원은 "칭다오시는 도심 곳곳에 장기간 방치돼 온 공간을 시민을 위한 녹색 공간으로 변모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폐업 위기 몰린 상인 위해 상품권 3500억 발행 "전기·가스·수도 사용량 한눈에 확인하세요"

서울 내 특별피해상권서 사용 가능
50만원까지 10% 할인,페이백 혜택

서울시는 감염병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상권 회복 특별 지원 상품권'을 35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상품권은 코로나 피해가 극심한 ▲종로·청계 ▲명동·남대문·북창 ▲동대문 패션타운 ▲이태원 도심 4대 관광특구, 25개 자치구 내 특별피해상권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번에 발행하는 상품권은 1인당 50만원까지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결제 금액의 10%, 월 최대 2만원까지 페이백(선착순 2억원 한도 내)도 해준다. 이렇게 되면 1인당 월 최대 7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소상공인이 매출 증대 효과를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상품권 사용 유효 기간을 구매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한정했다.

우선 시는 이달 30일부터 도심 4대 관광특구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을 각 구역별로 250억원씩 총 1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내달 중순에는 서울 25개 자치구 내 특별피해상권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 구마다 100억원씩 총 2500억원 규모로 풀린다.

상권 회복 특별 지원 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가맹점 리스트는 사용자 안내앱인 '지맵'에서 확인하면 된다. 가맹점 가입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제로페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상권 회복 특별 지원 상품권이 매출 하락과 관광객 감소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상권별 맞춤형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에너지정보 플랫폼' 오픈
가정집 사용량·패턴 등 정보 제공

서울시는 29일 우리동네 에너지 사용량, 가정집의 에너지 사용 패턴 등 각종 에너지 데이터를 총망라한 '서울시 에너지정보 플랫폼'을 오픈한다고 28일 밝혔다.

에너지정보 플랫폼에 회원가입을 하면 우리집의 월별 전기, 가스, 수도, 난방 사용량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자치구·행정동·건물유형별로 사용

한 월별 에너지 데이터와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도 공개한다.

시는 관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비중이 91%를 차지하는 만큼 에너지 데이터를 통합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에너지 데이터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시민이 바라는 서울시 정책은 '전기차 보급'

서울시민 선정 10대 정책 발표

서울시는 이달 10~24일 '비전2030, 시민이 기대하는 서울시 10대 정책'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기차 보급·생활권 5분 충전망 구축'이 1위로 꼽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투표는 비전2030 이행을 위한

서울시의 주요 사업 30개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1만5440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시민이 기대하는 서울시 정책 1위는 '온실가스·미세먼지 줄이는 전기차 보급·생활권 5분 충전망 구축'으로 총 6298표(6.05%)를 받았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는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27만대를 보급하고 충전기 20만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2위는 '자기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온서울 건강온'(6128표, 5.88%)이 차지했다.

온서울 건강온은 시민들에게 스마트 밴드를 제공, 비대면으로 자가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시범사업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26 | 해질 / 17:14

11월 29일 (월)
음력 : 10월 25일

수도권 날씨
2 ~ 12°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2/12, 동두천 0/12, 가평 -3/10, 파주 -2/12, 서울 4/12, 양평 0/11, 수원 3/13, 용인 3/13, 평택 -1/12, 인천 4/12, 백령도 9/13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美, 위드 코로나 이후 첫 블프...재확산 우려 속 줄서기 재등장 /사진 뉴시스
▲형다자자동차, 미개발 토지 팔아 2천 400억 마련

▲기시다 총리, 내달 개최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
▲일본 30개 기업·연구기관, 재사용 로켓 2030년까지 공동개발



▲北도 오미크론 변이 주목...“세계 많은 나라 경계심”
▲개발국 백신부족에 인력·시설·장비 부족...골머리 /사진 뉴시스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